

가나아트 40주년 개관 기념전

《1983-2023 가나화랑-가나아트》

2023. 2. 17. FRI – 2023. 3. 19. SUN

GANART CENTER

서울시 종로구 평창 30길 28

가나아트는 40주년 개관 기념전 《1983-2023 가나화랑-가나아트》를 개최합니다. 본 전시는 1983년 인사동에서 시작한 가나화랑이 지금의 가나아트로 성장해온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동안 축적한 결과물을 발판으로 바르게 서서 앞으로의 시간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시는 먼저 가나아트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시작됩니다. 1전시장에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나아트가 개최한 720여회의 전시와 진행 사업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연표와 사진자료, 전시 포스터와 도록, 가나아트가 발행한 미술전문잡지 『가나아트』 등을 공개합니다. 이어지는 2·3전시장은 40년간의 시간이 이뤄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전시장에서는 구본웅,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정규, 한묵 등 가나아트가 수집해온 한국 근대미술 작품들을, 3전시장에서는 바르셀로, 세자르, 알레친스키, 타피에스, 마크퀸 등 가나아트가 첫 해외진출 목적지로 삼은 유럽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합니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일을 연결하는 것이 화랑의 본령이지만, 가나아트는 미술관 못지않게 열심히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화랑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유럽으로 나갔던 젊은 창업주는 아트 바젤의 창시자 에른스트 바이엘러 (Ernst Beyeler, 1921-2010)를 만나 ‘유명 작품을 팔아 신진작가를 돕고 대표작을 사두어라. 그것이 명분이 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지나온 시간이 지금의 가나아트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1983년 개관부터 2023년 지금까지 40년간, 가나아트는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미술을 매개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까지 거침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을 반추하며, 가나아트의 현재를 다시금 제대로 파악해보려 합니다. 가나아트가 이뤄낸 영역의 확장과 작품 수집의 궤적은 가나아트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아트는 앞으로도 수집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믿으며 한국 근현대 미술사 수립의 현장에 일조하고 언제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가나다라’ 부터 다지며 새로운 길에 과감히 도전하려 합니다.

가나아트의 40년을 되짚어보며 성숙한 사회에서 한 갤러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삶에 미술을 더하려는 노력이, 많은 사람과 향유하려는 선의가 앞으로도 한국의 미술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Gana Korean Modern Art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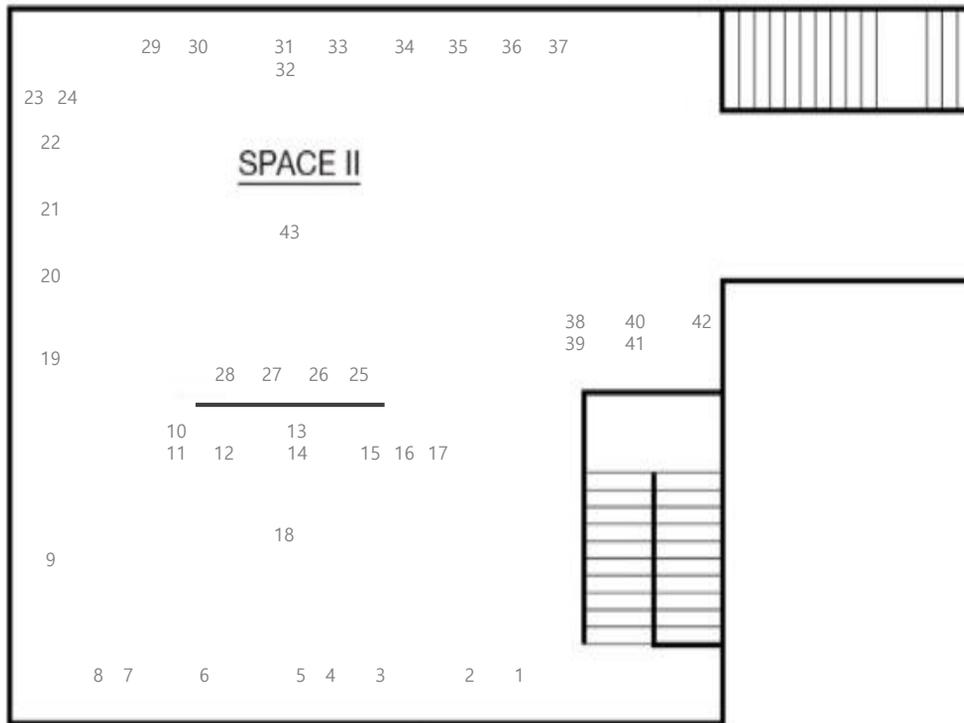
1983년 가나화랑이 개관하며 처음으로 연 전시는 이중섭, 이인성, 김환기, 함대정, 손응성 등을 내세운 《근대 서양화 7인전》이었습니다. 이듬해 건물을 옮기며 개최한 《이전개관기념전》에도 남관, 도상봉, 박수근, 유영국, 이봉상 등의 작품을 소개하며 한국 근대미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져 기념전, 유작전, 회고전, 소장품전 등의 형식으로 한국 근대미술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였고, 그렇게 "한국 미술사 정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한국 미술의 역사를 함께 쓰는 화랑"이라는 가나아트 정체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아트의 한국 근대미술 컬렉션은 개관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가나아트 컬렉션 가운데,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 미술, 작가 23인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입니다. 뒷면에 나혜석의 친필 글씨가 남아있는 작품 <낙동강>과 이인성의 1939년 작품 <복숭아> 등 대중에 오랜만에 공개되는 작품들을 포함하여, 한국 서양화 태동의 증인 이재창의 유화 2점, 최영림의 은지화, 조각가 문신의 유화, 기하추상의 선구자 이준의 50년대 여성 누드, 뒷면에 김향안 여사의 메모가 남아있는 김환기의 과슈 작품 등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도 전시되어 주목됩니다. 가나아트는 한국 미술의 뿌리이자, 가나아트의 미래 지표가 될 한국 근대미술 소장품을 토대로 하여 컬렉션의 영역을 한국의 현대 미술 및 동시대 미술로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출범한 비영리 법인 가나문화재단의 활동은 그렇게 축적된 미술재(美術財)를 공익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가나아트의 한국 근현대 미술 컬렉션이 우리 미술사를 한층 풍요롭게 하며 동시에 한국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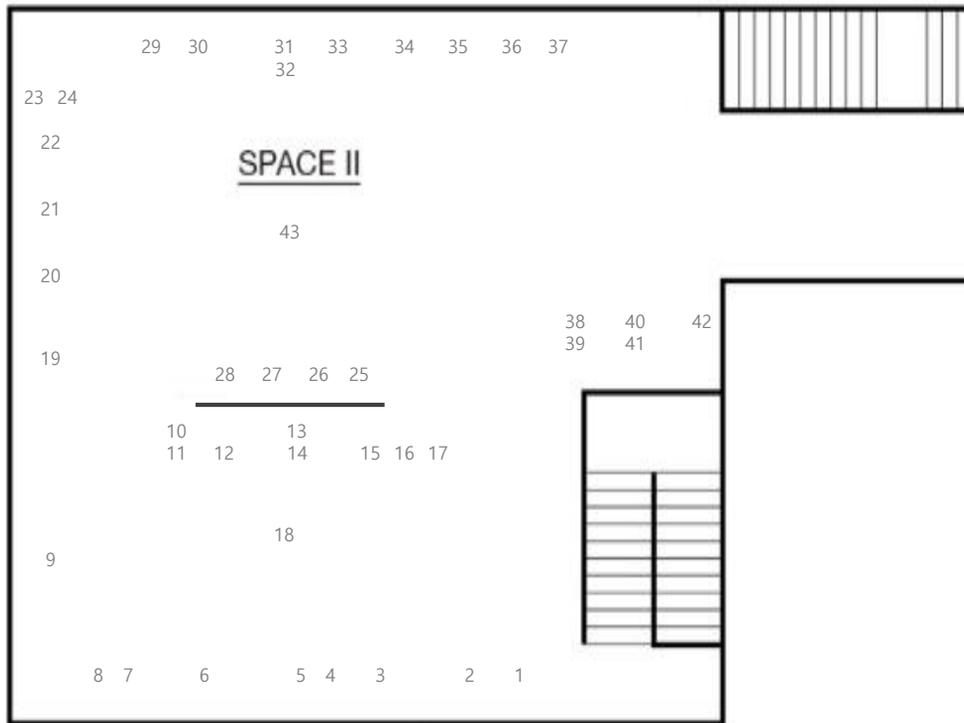
Gana European Art Collection

가나아트는 1983년 개관 이래 꾸준한 소장품 수집을 통해 한국 미술문화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나아트는 1980년대 초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해외 미술 현장에 진출해 다양한 지역 및 문화 기반의 작가들과 협업했으며, 세계의 동시대 미술을 한국에 소개하고 대중의 수준 높은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Gana European Art Collection은 "한국 미술의 세계화", "현대 미술의 대중화"에 일조한 가나의 40년 행보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전시는 주요작 18점을 선보이며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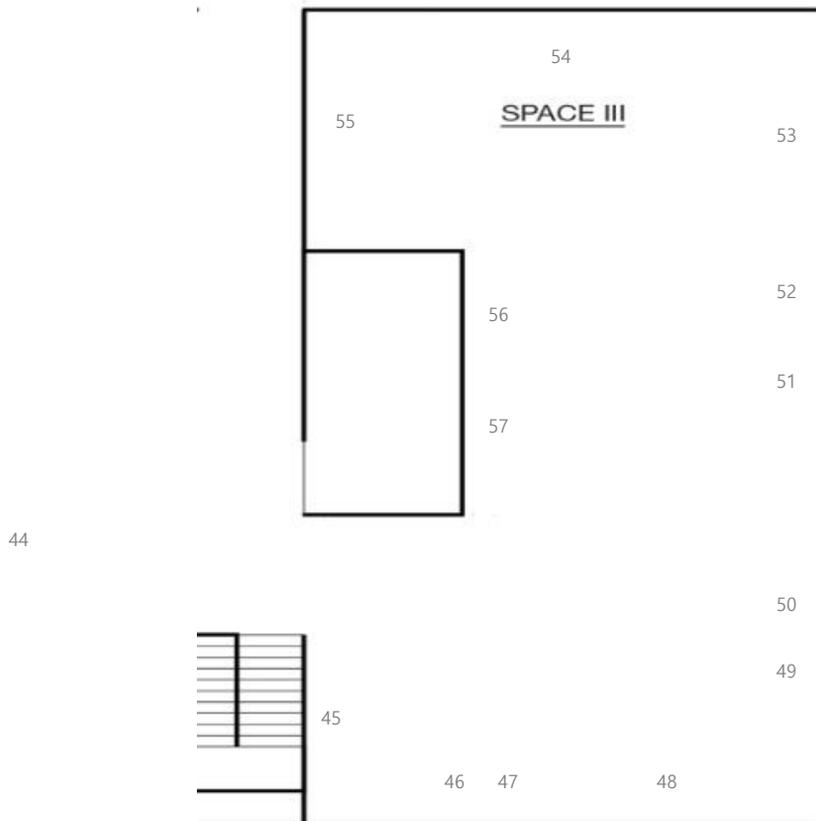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대형 회화와 미술사 최초로 자신의 신체를 캐스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인체 조각, 1980년대 이탈리아 트랜스 아방가르드(Trans Avant-garde)의 대표주자 엔초 쿠키(Enzo Cucchi)의 작업 등 당대는 물론 여전히 미술 현장의 화두인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전시는 가나아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인연을 맺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아트의 전신인 가나화랑에서 차례로 1985년, 1988년, 1990년, 1992년에 개인전을 개최한 피에르 알레친스키(Pierre Alechinsky), 세자르(César Baldaccini), 안토니 타피에스(Antoni Tàpies), 미켈 바르셀로(Miquel Barceló)와 2008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진 론 아라드(Ron Arad)와 마크 퀸(Marc Quinn)의 작품은 가나아트가 거처온 역사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가나아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발 앞서 소개함으로써 한국 미술 문화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1. 나혜석, 시흥 녹동서원, 1934, 패널에 유채, 34x24.5cm
2. 나혜석, 낙동강, 1930년대, 패널에 유채, 23.5x33cm
3. 구본웅, 여인 좌상, 1940년대, 목판에 유채, 조각, 23x15cm
4. 구본웅, 중앙청이 보이는 풍경, 1940년대, 캔버스에 유채, 15x22cm
5. 구본웅, 막 (漠), 1940년대, 종이에 채색, 30.5x25.5cm
6. 이달주, 복어, 1958, 캔버스에 유채, 33x45cm
7. 이대원, 풍경, 1940, 캔버스에 유채, 31.8x40.7cm
8. 이대원, 여거도, 1941, 캔버스에 유채, 31.5x40.8cm
9. 이인성, 복숭아, 1939, 캔버스에 유채, 90x116cm
10. 박수근, 고양이, 1950년대 후반, 하드보드에 유채, 16.5x19.5cm
11. 박수근, 고양이, 1963, 종이에 연필, 18.5x20.5cm
12. 박수근, 고목과 여인, 1960년대, 보드에 유채, 27x15.3cm
13. 이중섭, 가족, 1950년대, 은지에 새김, 유채, 10.5x15.5cm
14. 이중섭, 해초와 아이들, 1950년대, 종이에 연필, 유채, 13.7x18.7cm
15. 최영림, 꽃 한 송이, 1958 (단기 4291), 종이에 유채, 43.5x43.5cm
16. 최영림, 무제, 1969, 은지에 새김, 유채, 15.5x10.5cm
17. 최영림, 화려한행차, 1950, 종이에 유채, 54.5x27.5cm
18. 권진규, 자소상, 1967년경, 테라코타, 21x19x34(h)cm
19. 권옥연, 인물,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96.5x63.5cm



20. 장욱진, 무제, 1958, 캔버스에 유채, 33x24cm
21. 도상봉, 정물, 1959, 캔버스에 유채 24x33.3cm
22. 손응성, 고서화, 1959, 캔버스에 유채, 45.5x53cm
23. 손응성, 베넛저고리, 1960년대 초반, 캔버스에 유채, 38x46cm
24. 손응성, 대접, 1960년대, 캔버스에 유채, 38x46cm
25. 남관, 두 노인, 1955, 캔버스에 유채, 60.5x72cm
26. 정규, 봄의 축제, 1960년대, 캔버스에 유채, 33x41cm
27. 김경, 소, 1950년대 후반, 캔버스에 유채, 23x36.5cm
28. 박영선, 누드, 1950년대 후반, 캔버스에 유채, 78.6x59cm
29. 한묵, 여인상, 1957, 캔버스에 유채, 60x70cm
30. 한묵, 정물,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41x54cm
31. 함대정, 덕수궁, 1957, 캔버스에 유채, 34x28cm
32. 함대정, 왕십리변전소, 1957, 보드에 유채, 30.3x36cm
33. 함대정, 악사, 1957, 캔버스에 유채, 81x65cm
34. 이규상, Composition, 1959, 캔버스에 유채, 33x34cm
35. 이성자, 무제, 1957, 캔버스에 유채, 45x60cm
36. 문신, 풍경,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65x50cm
37. 이준, 누드, 1959, 캔버스에 유채, 55x48cm
38. 김환기, 무제, 1963, 종이에 과슈, 22.3x29.8cm
39. 김환기, 무제, 1963, 종이에 과슈, 22.3x29.8cm
40. 김환기, 무제, 1960년대, 종이에 과슈, 22.2x30.5cm
41. 김환기, 무제, 1963-64, 종이에 과슈, 9.5x24cm
42. 김환기, 12- I -68, 1968, 신문지에 유채, 55x37.2cm
43. 권진규, 고양이, 1964, 테라코타, 26x15x42(h)cm



44. Ron Arad, Acrylic Oh-Void, 2006, Polished and anodized red aluminium (unique), 58×119×66cm
45. Marc Quinn, Meditation on Illusion, 1996, Painted Bronze, 81.5×43.5×64.5cm
46. Enzo Cucchi, L'Attesa, 1996, Mixed media and collage on wood, 120×100cm
47. Enzo Cucchi, La Piazza degli Dei, 1996, Mixed media and collage on card, 120×100cm
48. Max Neumann, Man Kann Ja Nie Wissen, 1983, Tempera on canvas, 225×200cm
49. Pierre Alechinsky, Legerement parlant, 1985, Acrylic and black ink on paper, mounted on canvas, 274×249cm
50. César Baldaccini, Le Hibou Aile, 1955 – 82, Bronze, 187×65×93cm
51. Miquel Barceló, Atelier a l'etagere verte, 1994, Mixed media on canvas, 235×285cm
52. Miquel Barceló, Poulpes Et Fleuve Niger, 1994, Mixed media on canvas, 235×285cm
53. Tony Cragg, Gazelle, 1992, Mixed media, 137.2x73.6x177.8cm
54. Anselm Kiefer, Let a Thousand Flowers Bloom, 2000, Oil, shellac, emulsion on canvas, 280×660cm
55. Antony Gormley, Quantum cloud xxxiv, 2001, 스텐인레스 스틸 바, 230x145x130cm
56. Joseph Beuys, Zeichen aus dem Braunraum, 1984, Serigraph, 29×21cm (1ea), Ed. 150
57. Antoni Tapies, Profil de Vernis et pied, 1987, Varnish and pencil on canvas, 195×170cm